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1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                             |                            |     |
|-----------------------------|----------------------------|-----|
| *입례 찬양 Opening Hymn         |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 다같이 |
|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
| *찬 송 Hymn                   |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새9) | 다같이 |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 3번 시편(Psalm) 4 편           | 다같이 |
|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                            | 다같이 |
|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                            | 인도자 |
| *송 영 Gloria Patri           | 555 장 “세 번 아멘”             | 다같이 |
|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                            | 다같이 |

|                            |   |        |
|----------------------------|---|--------|
|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   | 문일호 장로 |
| 성경 봉독 Scripture            | <b>히브리서(Hebrews) 1:4-14</b>               | 고민영 집사 |
| 찬 양 Anthem                 | “영광의 어린양”                                 | 찬양대    |
| 설 교 Sermon                 | <b>“아들에 관하여는”<br/>(But about The Son)</b> | 김일선 목사 |
|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   | 다같이    |
| *찬 송 Hymn                  | 102 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새94)            | 다같이    |
| 봉 헌 Offerings              |   | 다같이    |
| *송 영 Doxology              |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새 317) 1 절           | 다같이    |
|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   | 다같이    |
| 교회 소식 Announcements        |   | 인도자    |
| *찬 송 Hymn                  | 470 장 “내 평생에 가는 길”(새413)                  | 다같이    |
| *축 도 Benediction           |   | 박대웅 목사 |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했던 말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진정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1:21, 히 3:1, 히 12: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한글개역 **히 1:8**)  
 “But about the Son he says, "Your throne, O God, will last for ever and ever,  
 and righteousness will be the scepter of your kingdom.” (NIV **Hebrews 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 날짜 | 1/26<br>(주일) | 1/27<br>(월) | 1/28<br>(화) | 1/29<br>(수) | 1/30<br>(목) | 1/31<br>(금) | 2/1<br>(토)  |
|----|--------------|-------------|-------------|-------------|-------------|-------------|-------------|
|    | 창27          | 창28         | 창29         | 창30         | 창31         | 창32         | 창33         |
| 본문 | 마26<br>예3    | 마27<br>예4   | 마28<br>예5   | 막1<br>예6    | 막2<br>예7    | 막3<br>예8    | 막4<br>예9,10 |
|    | 행26          | 행27         | 행28         | 롬1          | 롬2          | 롬3          | 롬4          |

수요/찬양/집회 선/교/ 교육/기도/회

|                      |                                 |
|----------------------|---------------------------------|
| 수요 찬양집회(1/29 오후7:30) | “회막 일을 위해 레위인을 계수하라”(민4: 46-49) |
| 선교/교육기도회(2/1 오전6:30) | “예수, 열방의 소망”(롬15:7-13)          |

지난 주일(1/19) 말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히 1:1-3)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앞으로의 장래에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복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일찍이 다윗은 시편 95편 6절부터 8절 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1)첫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며, 2)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하며, 3)셋째,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들려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메/모